

한·중·일 전통 건축과 복식 비교를 통한 패션디자인 연구

심 상 보*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요 약

복식디자인은 동시대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시대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반영한 제작물들의 비교를 통해 복식에 작용한 미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조형적인 특징을 공유할 것으로 추측되는 건축과 복식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미적 요소를 찾고자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건축과 복식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적 복식디자인 요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이다. 우리나라의 건축과 복식에서 보여지는 선은 급한 힘이나 과장이 없는 완만한 선이다. 이러한 선의 특징은 복식의 제작 과정에 작용하여 완만한 윤곽선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의복 패턴은 직선과 작은 호를 그리는 구체적인 도형들이 기본을 이루지만, 한복의 선은 직선과 유사한 다양한 만곡이 사용되어 인체의 윤곽선을 따라서 제도된다. 둘째, 여유로움과 가변성이다. 한복은 장식을 절제하고 좌식생활에 필요한 여유를 고려한 복식이다. 중앙에 위치한 고름은 입고 벗기 편하며 착용자의 상태에 따라 폼을 조절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자연의 색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건축과 복식은 명료한 색상대비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한복 상하의 색상대비는 경쾌한 느낌을 주며, 각각의 명료한 색을 이용한 대비는 근접 색이 사용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풍부한 색감을 보여준다. 넷째, 자연의 형태를 간략화한 문양이다. 우리나라의 문양은 자연에서 모티프를 가져 왔으나 중국처럼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일본만큼 도안화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문양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정도의 간략화로 자연과 어울리고 과장되지 않게 디자인되었다.

주제어 : 한국 건축, 한복, 한국 양식, 한복 스타일, 한국적 복식디자인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심상보, sangbeau@naver.com

접수일: 2017년 7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1일

I. 서론

동아시아 스타일 중에 커다란 소매와 허리에 띠를 두르는 가운 형식의 일본 스타일 패션 제품을 흔히 ‘기모노 스타일’이라고 하고, 스탠드 칼라와 사선 여밈에 매듭단추가 달려 있고 용 문양이 눈에 띄는 스타일은 ‘차이나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둥근 소매곡선과 넓은 끈 여밈의 넉넉한 스타일을 ‘한복 스타일’이나 ‘한국 스타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많은 세계인들은 한복을 치파오와 기모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민속복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가 인식하는 ‘한복 스타일’은 없으며, 세계 패션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적 특징의 패션 브랜드도 찾기 힘들다. 브랜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브랜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적 요소에 있고, 한국 패션디자인의 정체성은 결국 한복에 있다.

중국의 전통복식인 치파오는 서양식 재단 방식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드레스가 되었고, 기모노는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나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등 걸출한 자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아방가르드한 일본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재탄생 하였다. 그러나 한복은 전통복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복을 현대적 스타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복에서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할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 치파오는 스탠드 칼라와 사선 여밈, 매듭단추를 포인트로 디자인되어 타이트한 드레스로 현대화하였다. 기모노는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기모노의 기본 형태를 포인트로 일본의 전통 방염기법인 유우젠염(ゆうぜん染)이나 시보리(しぼり) 등, 다양한 가식 기법에서 나타나는 문양과 효과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한복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복의 디자인 요소 중에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하여 현대적인 스타

일로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복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복식으로 서양복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의복이며 중국과 일본의 전통복식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한복의 명확한 디자인적 특징을 찾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디자인 콘셉트의 바탕이 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주변의 문화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므로 가까운 문화권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건축과 복식은 문화와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Kim, 2004) 주변국의 건축과 복식을 비교함으로써 현대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디자인 요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건축과 복식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출된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패션 제품에 적용하여 독립적인 스타일로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한복 스타일’은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건축과 복식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징을 조형요소인 선, 형태, 색, 문양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축과 복식의 디자인적 유사성을 정리하여 패션 제품 디자인에 필요한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중·일 전통 건축과 복식에 내재된 기초 개념

1. 한·중·일의 문화적 배경

동아시아 삼국은 유교 사상과 한자 등 문화적 공통성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가족과 가문의 사회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사상과 생활문화에 있어서 삼국은 자연을 강조하며, ‘인간

Table 1. 한·중·일 사상의 공통성과 차별성.

개념	국가	한국	중국	일본
공통성		유가사상, 도가사상, 음양오행사상, 풍수사상, 한자문화		
차별성		천지인사상, 인본주의, 무위적 자연지향	중화사상, 중용주의, 광대지향	신국사상, 작위적 축소지향

Adapted from Park et al. (2004), p. 22.

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관념(idea)과 형상(eidos)의 구별이 없는 동아시아 사고는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서 동화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예술과 미의식은 자연을 닮으려는 경향과 제작형태의 기본 틀을 자연에서 가져오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중국 고대 사회의 정통 사상인 유가(儒家)의 철학적 의미와 예술적 기질을 갖춘 학설인 도가(道家)의 영향은 동아시아의 문화 기저에 깔려 있다. 인(仁)의 범주에서 예악 제도(禮樂制度)와 예악 문화를 수립하려 했던 공자는 미(美)와 예술을 윤리의 문제로 보았다. 맹자는 선(善)이 가득한 것을 미(美)라 하였으며 이때 선은 의롭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의(義)를 뜻한다. 인위(人爲)를 배제하는 도가의 철학은 자연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예술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하늘과 땅, 인간 중 특히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본질로 삼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상을 매개로 자신과 하늘의 관계를 연계시켜, 땅에 근본한 물질주의나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근본한 초월주의보다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이념으로 나타난다(Kim, 2004). 중국은 실리적인 사고를 갖춘 유목민족인 '호족'과 관념적인 사고를 갖춘 정착민족인 '한족'이 주도권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인의 사고는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을 동시에 보이는 중용적 성격을 갖고있다. 일본은 무인(武人) 가문이 통치하는 바쿠후(幕府) 시대가 12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위계질서가 강조되어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지배계층의 무인

들은 권력의 과시를 위해 예술가를 고용하고 화려한 그림과 공예품으로 성(城)을 장식했다(Lee et al., 2007).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한적한 정취를 찾고자 '와비(わび)'나 '사비(さび)'의 정신을 지향하는 양면성을 보인다(Table 1).

2. 한·중·일 전통 건축

동아시아의 건축은 가구식 목조 건축이다. 목재를 주재료로 삼아 공간을 구축한다. 건축의 구성은 상분(上分), 즉 지붕, 중분(中分), 즉 축부(軸部) 또는 몸체, 하분(下分), 즉 기단(基壇)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Han, 2011). 건축 순서는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초석(礎石)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도리를 올리고, 도리를 받침으로 서까래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씌는다(Figure 1).

가구식 목조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는 중국 한(漢)대에 완성 되었으며 한반도와 일본 등으로 전해졌다. 당의 멸망으로 중화권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건축도 고유의 특징을 갖추기 시작했다. 목조 건축의 입면적 특징은 지붕이며, 지붕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기단, 축부, 지붕 중에 지붕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목조 건축의 특성상 전체 형태를 강조할 유일한 수단이 지붕이며 건축의 시선을 잡는 것도 지붕이기 때문이다(Li, 1982/2000). 전체적으로 한국의 건축은 중용적인 입장에서 소박하고, 중국의 건축은 척도에서 장대하여 웅장하며, 일본의 건축은 기계적이고 날카롭다(Kw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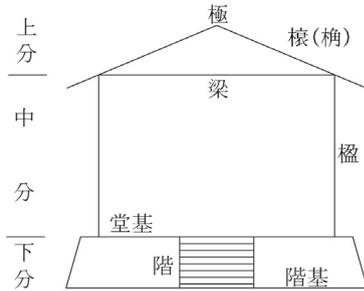


Figure 1.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설명된 목조 건축의 구성요소.
From Illustrated by the author.
(September 15, 2016)



Figure 2. 완전히 열리는 들어열개문.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August 10, 2016)

1) 한국의 전통 건축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은 70% 이상이 산이나 구릉지로 되어 있는 노년기 지형이다. 또한 사계절이 명확한 우리나라의 기후는 자연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건축의 배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축의 기교는 적으며 자연과 합일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Yoon, 2008).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건축의 입면성보다 건축을 사용하는 사람과 건축의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건축의 가치를 준다.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은 ‘채(棟)’를 단위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진다. 채의 배치는 비대칭적이며 소단위의 기본공간인 칸으로 분화되어 있다. 건물자체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각각의 채들이 터에 나열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주거의 공간으로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완전히 열리는 들어열개문 <Figure 2>와 차일을 이용하여 내부공간을 확대하거나 외부공간과 연속성을 만든다. 중국과 일본의 창도 들어열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벽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주거 건축은 북방의 온돌과 남방의 마루가 결합된 방식이다. 13, 14세기에 널리 확산된 온돌은 고려후기에 와서 온돌이 실내 전면에 깔리게 되면서 아궁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 부엌과

온돌과 마루가 한 지붕 아래 연결되는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다. 아궁이가 실외로 나간 온돌방은 단순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폐쇄적인 온돌방과 개방적인 마루의 조합은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의 조화로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건축의 특징이다.

조선중기 이후, 양질의 건축 자재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은 자연적인 재료의 특성을 살리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가공된 형태의 기둥과 보가 사용되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나타난다. 자연석 주춧돌 위에 그랭이질을 하여 기둥을 세웠으며, 추녀와 보는 나무의 자연적인 곡선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 중국의 전통 건축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많아 건물을 설계할 때 방위성을 중요시 하였다. 내부와 외부가 담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채광과 통풍을 위해 중앙에 중탕(中庭)을 조성하였다. 중국의 건축은 좌우대칭의 구조이며(Li, 1982/2000) 중탕을 중심으로 사면을 건물이 둘러싸는 합원식(合院式) 배치는 지역에 따라 이커인식, 천정식, 원락식 배치라고 한다(Han, 2009). 네 채의 건물과 가운데 중탕이 있는 가옥을 쓰허위안(四合院)이라고 하며,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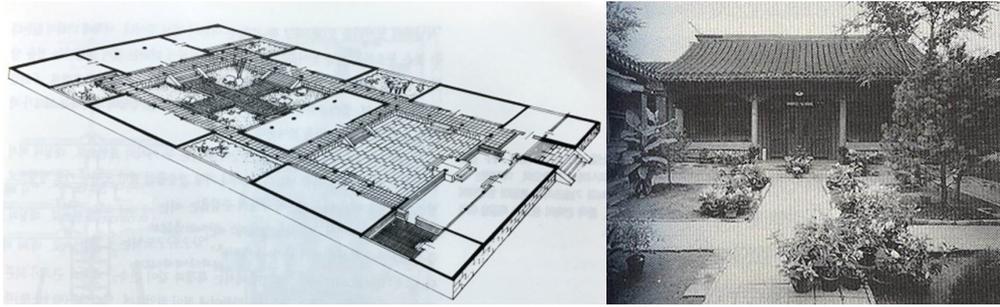


Figure 3. 쓰허위안의 평면 구성 형식, 내부 전경.
From Li. (1982/2000). pp. 181, 205.

허위안은 같은 구조를 반복하여 거대한 주택의 형태를 형성하기도 한다(Figure 3).

중국 전통 공간의 배치는 남북의 중축선을 강조하고, 규칙적이며 조직의 순서가 분명하고, 균형과 대칭을 이룬다. 중국은 위계적 질서와 혈연적 유대관계를 근본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였으므로 공간구성에서도 위계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대칭의 배치는 쓰허위안부터 쩌진청(紫禁城)이 위치한 베이징의 성시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중국 건축은 화려한 장식과 곡선의 지붕의 설계가 특징이다. 지붕의 곡선 형성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정확한 결론은 없다. 다만 중국 남방 건축물의 지붕은 북방 건축에 비해 심하게 휘어졌는데, 휘어진 정도의 차이는 기질의 차이로 보인다. 송대에는 지붕의 경사도와 지붕면, 경사면의 처리를 거절(學折)이라고 하였으며, ‘영조법식’에 거절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경사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특히 양자강 하류 원림 건축에서는 눈창(嫩戩)을 이용하여 추녀 끝에 곡을 많이 주었다. 지붕을 장식하는 잡상과 치미(鷓尾)는 장식성과 함께 수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부재에 채색을 하고 색을 입힌 기와를 올려 화려함을 더 했다.

3) 일본의 전통 건축

일본은 태풍과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온화한

기후로 두꺼운 벽체가 필요 없으나 강한 바람에 견디기 위하여 기단보다 홋타테바시라(はりたてばしら)를 사용하고, 무거운 지붕 대신 고야구미(こやぐみ)를 이용한 가벼운 지붕을 만들었다. 지붕의 경량화는 거대한 지붕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거대한 지붕은 시각적인 불안감을 주어 모코시(裳階)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었다. 일본 건축의 지붕은 10세기 노야네(野屋根)와 12세기경 하네기(枯木)가 등장하면서 독특하면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Hong, 2012). 노야네는 비가 많이 오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자연적 조건에서 대규모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하네기는 서까래가 지붕의 무게를 받지 않게 하여 지붕의 기울기가 크게 만들고 처마를 많이 도출시켜 비가 들이지 않게 한다(Kim, 2015). 하네기가 보편화되면서 추녀의 하중분담이 줄었고, 모서리 서까래의 배열은 의장적인 이유와 시공 상의 편리를 위하여 평연방식으로 바뀌었다(Hong, 2012). 평연방식은 처마선을 거의 직선으로 만들었으며 장식을 위해 양끝에만 곡을 주었다. <Figure 4>와 같이 일본의 주택은 다다미(たたみ)와 쇼지(しょうじ), 후스마(ふすま) 등 모듈화 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전체가 일정한 비례로 구성된다. 방의 크기는 다다미의 개수로 측정하고 다다미의 치수는 주택 창호와 일치하도록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다(Kim, 2015). 면적의 단위가 된 다다미는 일본건축이 규



Figure 4. 후스마.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17)

격성과 통일된 비례감을 갖게 하였다. 일본은 목조 건축에 적합한 좋은 재질의 목재가 많이 생산되어 모듈화에 필요한 규격화된 부재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모듈화는 한정된 조건을 제공하여 미적 표현을 위한 세부기법이 발달하는 이유가 되었다.

3. 한·중·일 전통 복식

일반적으로 한·중·일의 대표 복식으로 인식하는 전통복식은 한복과 치파오, 기모노다. 한복은 고대로부터 상의하교(上衣下袴)라는 2부형식의 기본 구조를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Lee, 1986), 중국의 치파오는 청대에 한족과 호족이 모두 입은 만주족의 복식으로 1900년대 초 서양의 재단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스타일로 개발되었다. 일본의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복식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고소테를 원형으로 고소테(こそて), 후리소테(ふりそて), 유카타(ゆかた) 등을 말하며 남녀 모두의 기본 복식을 의미한다.

1) 한국의 전통 복식

우리나라 복식은 북방 기마민족의 복식을 원류로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며, 겹옷은 포(袍)가 더해지고 여성복은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언어가 알타이어계라

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복식은 알타이어계이다. 알타이어계 복식은 추위를 피하고 유목 생활에 적합하도록 몸을 완전히 감싸며,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좁은 ‘상의하교(上衣下袴)’의 2부형식이다(Shim, 2016). 외세의 영향으로 지배계층의 복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서민복식의 기본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지배계층의 복식 중에 일부는 국속화하여 서민의 복식이 되었는데 예로 두루마기는 포의 형식에서 변화하였으며 마고자는 만주족의 복식인 마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복식으로 현재까지 널리 착용되고 있다. 배자는 앞 여밈이 겹치지 않는 옷의 총칭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복식이다. 두루마기 형태의 겹옷은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없으나, 치마 저고리의 여성복 기본형태는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와 치마의 폭과 길이가 변했다. 귀족들에게 바지저고리는 속옷이나 잠옷으로 사용되었으며 서민들은 평상복이자 노동복으로 사용된 실용적인 복식이다(Hong et al., 2011).

온돌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은 좌식 생활이 보편화되어 좌식 생활에 편리한 2부형식의 복식을 유지하였다. 2부형식의 복식은 상하의의 비례와 균형이 중요한 미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1부형식에 비하여 작은 상의 면적은 의복 디자인에 영향을 주어 회화형식의 장식보다는 색 대비나 면 분할 장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2) 중국의 전통 복식

중국의 역사는 북방 유목민족인 호족(胡族)과 중원의 농경민족인 한족(漢族)의 대결과 융합의 과정이다. 중국의 복식도 호족과 한족의 지배세력 교체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났다. 춘추전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에 한족과 호족의 복식이 융합되었으며 이후 당, 송, 원과 명, 청이 교체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다양한 양식이 나타났다. 특히 한족의 복제는 주의 제도를 근거로 하여 명대

까지 이어졌으며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다. 호족의 복식은 짧은 상의와 바지의 2부형식이며, 한족의 복식은 상의와 치마 그리고 심의(深衣)에 기원을 둔 포(袍)이다(Kim, 1974). 중국의 대표 복식인 치파오(旗袍)는 청대(1644-1911) 300년동안 만주족의 복식과 중국 한족의 복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혼합된 형태의 복식이다. 초기에는 간단한 복식이었으나 한족 복식의 영향을 받아 포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청대가 부유해지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에 민족간 복식문화의 제약이 사라졌으나 치파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애용되었다. 1930년대부터 서양에서 치파오를 ‘차이니즈 드레스’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통 복식의 원형으로 인식되었다.

치파오는 만주족의 창파오(長袍)를 기원으로 한다. 유목민족의 파오(袍)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창파오로 발전하였다. 만주족은 남녀모두 창파오를 입었으며 창파오는 마제수와 사면개차가 특징으로 안에 장고(長袴)를 입었다. 청대에는 한족의 복식을 금지하고 남녀모두 파오를 입도록 했다. 파오의 종류는 차오파오(朝袍), 망파오(蟒袍), 룡파오(龍袍) 등 많은 종류가 있었으나 여성들이 입던 창파오가 치파오의 원형이 되었다. 전통 치파오는 목둘레,



Figure 5. 청말 치파오.
From Garrett. (2007). p. 51.

소맷부리, 여밂선, 아랫단 등 가장자리에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선을 둘렀고,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자수를 놓았다(Liu, 2012), (Figure 5).

3) 일본의 전통 복식

일본의 복식은 대륙 북부의 호복을 기원으로 한다. 관복(冠服)은 중국의 복제를 따르고자 했으나 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일본화가 진행되었다. 각각의 복식은 위계에 따라 차이를 명확히 하여 신분 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높였다. 헤이안(へいあん)시대 이후 무가(武家)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천황과 조정의 중심인 공가(公家) 세력이 약해지고 복잡한 공가의 복식은 실용적인 형태로 간소화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무가가 지배 세력이 되면서 복식의 형태 자체는 단순화 되었지만 세부적인 기술이 발달하여 옷감의 조직과 문양은 화려해졌다. 특히 바쿠후(ばくふ)의 보호아래 직조기술과 다양한 가식기법이 발달하여 화려한 복식문화의 토대가 되었다(Hong et al., 2011). 에도시대 이후 일본 복식은 고소테를 기본으로 같은 형태의 복식을 겹쳐 입는 착용법이 보편화 되었다.

기모노의 원형인 고소테는 가마쿠라 시대에 내의와 외의를 겸한 서민의 옷으로 남녀공용이었다. 무로마치 후기에는 고소테를 표의로서 착용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기모노에 비해 길의 폭이 넓고 발목까지의 길이에 오비도 남녀 공용으로 폭이 좁았다(Koike et al., 2000, 2002/2005). 기모노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복식에 비해 더 직선적이고 평면적으로 의복을 체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츠케(着付け), 즉 옷매무새로 몸에 맞추어 착용하는 의복이다(Jeong, 2009). 모든 기모노는 형태가 같고 성별과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크기가 표준화 되어있다(Namkung, 1999). 옷을 걸어 올려 착용하는 오하쇼리(おはしょり)는 표준화되어 있는 기모노를 착용자의 키에 맞춰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모노는 표준화된 의복에 개별적인 미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복의 형태에 대한 디자인보다는 의복표면을 장식하는 다양한 장식방법이 발달하였다. 특히 2부형식의 한복에 비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모노는 의복의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장식하는데 용이하다.

III. 한·중·일 전통 건축과 복식에 반영된 조형요소 비교

건축과 복식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며 사고를 담고 있고, 공간을 구성하는 조형물(造形物)로서 미의식을 표현한다. 건축과 복식은 첫째, 사회관계 속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장막의 역할을 하고, 둘째, 인간을 척도로 제작되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며, 셋째, 동시대 생활양식의 형태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의식을 표현한 조형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 건축과 복식을 선, 형태, 색, 문양의 조형요소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조형은 제작자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된 형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인 조형물은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있다. 조형요소는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로, 2차원이나 3차원의 형태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지각 요소이다. 이와 같은 조형요소는 ‘형태를 만드는 기본 요소’라는 미술적 표현에서 의미이며, 생활양식 전반에 다양한 사물을 인지하는 시각전달 요소들이다(Lee, 2008). 따라서 조형물인 건축과 복식의 시각정보도 조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중 건축과 복식의 외형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과 복식의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선, 건축과 복식이 점유한 공간

의 형태, 건축과 복식이 빛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색과 표면에 표현되는 문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중·일 전통 건축의 비교

1) 한·중·일 전통 건축의 선 비교

목조 건축의 입면적 특징은 지붕이며 건축의 전체 외형을 인식하는 가장 강한 부분도 지붕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 構造)를 기본으로 하는 서양 건축은 면적 구성이 두드러지지만 가구식 구조의 한·중·일 건축은 선적 구성을 보인다(Kwon, 2006). 한·중·일 목조 건축의 지붕선은 처마는 물론 용마루, 내림마루 등 지붕의 윤곽을 이루는 모든 선들이 곡선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넓은 지붕면 자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Kim, 2015). 그러나 10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은 작업의 편리성과 기후에 따라 처마 끝의 곡선이 조금씩 달라진다. 중국은 선자연에서 마곡연으로 시공이 간편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처마의 곡선은 유지하기 위해 눈창(嫩戩)과 같은 부재를 사용하여 인위적인 곡선을 만들었다. 일본은 기후적인 영향을 받아 가볍고 단단한 이중 지붕으로 발전한다. 일본의 처마는 평연을 사용하여 곡선이 거의 사라졌으며 규구술(規矩術)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처마 끝 곡선을 만들었다(Kim, 2002). 반면에 우리나라의 처마선은 자연스럽게 굽은 나무를 사용하여 선자연뿐만 아니라 평연구간도 곡선으로 처리하여 완만한 선을 보여준다. 외형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지붕곡선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Kwon, 2006). 양끝을 끈을 걸고 늘어트린다면 우리나라는 적당히 당긴 완만한 곡선이고 중국은 늘어진 곡선이며 일본은 양단을 잡아당긴 팽팽한 곡선이다.

우리나라의 지붕은 절제된 선과 자연스러운 곡선이 적당히 어우러져 있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선이다. 중국의 지붕은 다양한 곡선을 중첩되



Figure 6. 지붕 처마선(왼쪽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지붕).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17)



Figure 7. 들문과 들창(왼쪽부터 한국의 들문, 중국의 들창, 일본의 들창).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17)

게 사용하여 솟아날 듯 탄력 있는 곡선과 굽이치는 자연의 격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의 지붕선은 직선에 가깝다. 서까래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날카롭게 치목된 곧은 각재들을 등 간격으로 배열하고, 귀와 추녀에서 직각으로 짜 맞추어 나가는데 비하여 한국의 서까래들은 추녀에서 선자 서까래를 사용함으로써 유연함을 이루어 일본 건축의 날카롭고 기계적인 맛과 달리 부드러운 특징을 드러낸다(Kwon, 2006), (Figure 6).

2) 한·중·전통 건축의 형태 비교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비해 겨울이 춥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축의 유연한 대처는 온돌과 마루를 한 지붕 아래 놓는 새로운 구성방법을 만들었다. 중국도 북부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난방 구조로 캉(炕)이 있다. 캉은 부분난방방식으로 실내에 일부를

온돌로 만든다. 난방을 위해서는 실내에서 불을 피워야 하므로 연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일본 주거건축의 대표적인 난방 시설인 이로리(いろり)와 고타쓰(こたつ)도 모두 실내에서 불을 피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주거 건축은 겨울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난방도구를 실내에 설치함으로써 실내공간의 사용범위를 축소시키고 시각적으로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밖에서 불을 피우는 온돌을 사용하여 실내공간은 단순하다. 우리나라 건물은 건물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완전히 열리는 들어열개 문을 열고 외부공간인 마당에 차일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확장한다. 중국과 일본도 들어열개 방식의 창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개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필요에 따라 칸막이를 들어내고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내부에 한정되어 있다(Figure 7).

우리나라의 건축은 현관의 개념이 없으나 중국과 일본의 건축은 현관의 개념을 갖는 박공(博拱)이 있다. 박공은 외부와 내부의 공간 지대를 만들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지나도록 한다. 평면적인 나열식 배치를 하는 우리나라 건축은 별도의 공간 없이 외부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담이 있고 담 안에 청이 둘러져 있고 중앙에 중탕이 있는 중국의 건축은 여러 차원의 중첩된 공간을 만들어 깊이감이 있다.

3) 한·중·일 전통 건축의 색 비교

한·중·일 삼국의 전반적인 색채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고, 중국은 웅장하며, 일본은 단순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Kwon, 2006).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극단적인 색상의 대비는 적다. 우리나라의 단청은 중국에 비해 채도가 낮고 중후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넓은 면에 붉은색이나 황색과 같이 주목성이 높은 색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Kwon, 2006). 중국의 건축물은 풍부하고 선명한 색채를 대담하게 사용하여 대비가 강렬하고 웅장한 건축물과 어울린다. 일본은 삼국 중 무채색의 사용이 가장 많다. 무채색을 배경으로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은 색을 대비시키는 것은 깊이감을 주기 위함이다. 일본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색은 넓은 목재의 건축이 더욱 짙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습윤한 일본의 기후는 회색톤 선호에 영향을 주었고, 현실도피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성향도 이러한 색 사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Kwon, 2006).

측색을 통한 색채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고명도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고, 중국은 중명도의 고채도 색채를 사용하며, 일본은 저명도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종합적으로 채도 면에서 중국, 한국, 일본 순(順)이며, 명도 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순이다(Kwon, 2006). 중국은 자연적인 색상을

더욱 짙게 보이도록 높은 채도의 색을 사용하고 더불어 금은색과 같이 광택이 있는 색상을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더욱 화려하다. 일본은 단색을 넓은 면에 사용하거나 광택있는 금색을 사용하여 오래된 건물의 나무색이 더욱 짙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자연에 가까운 색으로 자연을 모사하여 사용한다. 기둥은 소나무와 같이 붉은색을 사용하고 기둥 위 공포에는 소나무 잎처럼 녹색위주의 색상을 사용하는 상록하단(上綠下丹)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함이다(Ji, 2015).

4) 한·중·일 전통 건축의 문양 비교

우리나라는 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기하학적 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Lee, 2004). 추상적인 문양이 많으며, 자연 친화 사상으로 인간을 자연 속에 순응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선과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꽃담은 기하학적 문양과 식물, 동물문양이 어우러져 사용되었으며, 식물문양 중에는 모란이 최대의 길상적 의미를 지닌다(Song, 2010). 중국은 용을 주제로 하는 문양이 많으며, 색채가 강하고 양감이 풍부한 사실적인 표현이 많고,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목적으로 세밀한 표현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일본은 국화를 사용한 문양이 많고, 양식화된 세밀하고 산뜻한 문양을 사용하며, 단순화한 장식을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양은 가장 자연적이고, 중국의 문양은 가장 화려하고 사실적이며, 일본의 문양은 두 나라의 특성을 모두 지닌 양면성을 띤다(Park et al., 2004), (Figure 8), (Table 2).

2. 한·중·일 전통 복식의 비교

1) 한·중·일 전통 복식의 선 비교

한복의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선이다. 한복의 곡선은 우리나라의 낮은 구릉의 모습을 닮



Figure 8. 단청 비교(왼쪽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단청).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2, 2017)

Table 2. 한·중·일 전통 건축의 비교.

조형요소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선		- 중국과 일본의 중간 곡선	- 가장 곡선적	- 가장 직선적
형태		- 마당의 다양한 역할 - 완전히 열리는 들어 열개창	- 건축의 중심으로서 중탕 - 완전히 열리지 않는 들창	- 자연을 내부화 - 완전히 열리지 않는 들문 (蔀戸)
색		- 삼국 중 가장 높은 명도와 중간 수준의 채도	- 채도가 높은 색과 중간 수준의 명도	- 채도와 명도가 모두 낮음
문양		- 꽃과 기하학적 선 - 도톰한 선으로 부드럽고 소박한 느낌	- 용 - 사실적이고 양감 풍부 색채가 강하고 다양	- 국화 -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

았다. 우리나라의 자연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없고 완만하며 끊어질 듯 이어진다. 곡선의 휘어짐 정도는 제작자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한복의 곡선은 주변 환경에서 항상 보던 익숙한 선으로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한다(Figure 9). 치파오의 선은 인체의 윤곽선을 따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마민족 복식의 특징은 활동에 편리하도록 사지에 밀착하는 재단 방식을 따른다. 치파오는 마제수(馬蹄袖)와 사면개차(四面開衩)를 가지고 있는 초기 형태에서 중국 내륙에 정착하면서 마제수가 사라지고 옆 트임 만 있는 형태로 변화된다. 치파오의 형태는 기능이 사라지며 단순해 졌지만 만주족의 특징인 테두리 장식은 한족의 장식성과 만나 더욱 화려해 졌다. 몸판보다 짙은 테두리 장식은 형태감을 강조해 의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기모노는 착용

을 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전체적인 윤곽선은 허리를 무시하고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직선의 형태는 작은 일본인의 체구를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으며, 실제 허리의 위치와 상관없는 오비 장식은 이러한 효과를 더해 주었다(Figure 10). 기모노를 착용한 사람은 쥘겔음으로 움직여 직선인 형태를 망가지지 않도록 한다. 중국과 일본은 착용으로 정해진 윤곽선이 있으나 한복은 착용한 후에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유동적인 선을 고려한 복식이다(Table 3).

2) 한·중·일 전통 복식의 형태 비교

옷을 의미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단어 ‘코트(coat)’는 동물의 가죽을 의미한다. 서양의 의복이 기능적으로 제2피부로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에서 의복을 의미하는 단어인 의(衣), 패(袂), 포

Table 3. 한·중·일 전통 복식의 선 비교.

삼희장 저고리	치파오	기모노
 <p data-bbox="207 672 564 763"> Figure 9. 누비 삼희장 저고리와 치마. From 누비 삼희장 저고리 [Quilted Ornamental Jacket]. (n.d.). / 치마 [Skirt]. (n.d.). http://museum.dankook.ac.kr </p>	 <p data-bbox="649 672 835 695"> Figure 5. 청말 치파오. </p>	 <p data-bbox="963 672 1192 724"> Figure 10. 카타비라 기모노. From Milhaupt. (2014). p. 72. </p>

(袍)는 어깨에 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파오는 인체에 의복을 밀착시키는 기마민족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한족의 복식문화의 외형적인 화려함을 더했다. 때문에 기마민족의 복식에서 발전한 서양복과 유사한 형태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기모노는 인체의 형태와 상관없는 형태로 만들어 졌다. 기모노는 벗어서 개어놓으면 원단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면적이다. 한복은 인체의 형태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며, 착용하면서 착용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매무새를 다듬는 가변적인 의복이다.

한복은 평면적인 재단물을 제작 과정에서 인체의 동작 범위의 공간을 확보하고 소매부리와 바지부리는 좁히는 반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고름을 여밈으로 사용하는 한복은 신체와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걸쳐지며, 길에 부착된 고름을 이용한 여밈은 의복과 인체가 밀착되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착용된다. 따라서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적당한 매무새를 갖는 한복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의복의 윤곽선이 변화한다(Figure 11). 치파오는 인체의 형태에 밀착시키기 위해 단추(盤紐)를 사용했으며, 단추를 여밈으로 사용하는 치파오는 옷의 형태가 잡혀 있어 인체를 의복의 형태

에 가두는 형식이다. 옆선에 여러 개의 단추 여밈이 있는 치파오는 착용 후에 단단히 고정되어 형태를 유지하지만 한복에 비해서 입고 벗기 어렵다(Figure 12). 기모노는 원단의 제작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기모노는 대(帶)의 종류인 오비를 여밈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포장 하듯 착용한다. 오비는 의복을 신체와 밀착시켜야 착용이 가능하므로 기모노는 다양한 보조용품을 사용하여 신체와 고정된다. 기모노는 화려한 문양과 입체적인 오비로 장식되지만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겹겹이 포장한 듯 착용을 마치면 모두 유사한 윤곽선을 갖게 되어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이 감춰진다. 기모노는 옷을 입혀주는 사람(着付師)이 있을 정도로 혼자 입기 어려우며 착용 후 수시로 옷을 입고 벗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Figure 13), (Table 4).

3) 한·중·일 전통 복식의 색 비교

한·중·일 삼국은 동양 문화의 사유체계 운용원리인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색채사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색인 오방색이 생활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어 색채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공통성을 갖고 있다(Kim & Kim, 2012). 무늬와 색을 보면 우

Table 4. 회화에 나타난 한·중·일 전통 복식의 형태 비교.

한국	중국	일본
		
<p>Figure 11. 회화 속 한복. From Lee et al. (2003). p. 16.</p>	<p>Figure 12. 회화 속 치파오. From Chuncheon National Museum. (2016). p. 84.</p>	<p>Figure 13. 회화 속 기모노. From Milhaupt. (2014). p. 53.</p>

리나라는 담백하고 은근한 품위를 지닌 색을 선호하고, 중국은 꾸밈이 많고 장식적인 무늬에 농도 짙은 색채를 구사하며, 일본은 기교와 장식성을 나타낸 산뜻하고 정갈한 색채를 쓴다(Kwon, 2006). 전반적으로 색상의 채도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으며, 명도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다. 일본은 증명도, 중채도로 회색 톤을 띤 순색계통의 사용이 많다.

한복은 문양을 사용한 표현보다 색 대비에 의한 표현이 많다. 색동과 무지(無地), 상의와 하의의 색과 색의 대비에서 한복의 미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색의 대비는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 원색의 조화와 중간색의 대비로 인한 조화가 있다(Geum, 1990). 흑백(黑白)의 대비는 선비의 복장에서 볼 수 있고, 여성복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 황의홍상(黃衣紅裳), 녹의청상(綠衣靑裳) 등의 대비와 색동과 같은 경쾌한 원색의 조화를 볼 수 있다(Figure 14). 색 띠로 이루어진 색동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형태로, 명료한 색의 면과 면을 조화롭게 대비시켜 경쾌한 이미지를 만든 미

의식은 중국, 일본과 다른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 치파오는 한국과 같이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오행색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한복보다 높은 채도의 색을 사용하였다. 특히 화려한 문양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바탕색은 짙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모노는 검정과 회색, 짙은 청색 등 무채색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회화적인 장식을 하였다(Figure 15). 에도시대의 바쿠후(ばくふ)가 흥화나 자초와 같은 고가 염료의 사용을 규제하자 서민들이 사용하던 수수한 갈색인 차색, 회색인 쥐색, 그리고 방충효과와 염색 견뢰도가 높아 일상복과 노동복에 많이 사용했던 남초(藍草)를 사용한 청색을 많이 사용하였다(Lee, 2016), (Figure 16), (Table 5).

4) 한·중·일 전통 복식의 문양 비교

우리나라와 중국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의 종류와 색상을 달리 하였으나 일본은 신분과 계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장식성이 발달하였다(Jeon, 2003). 우리나라는 사실적이지 않고 적당한 비례와 균형을 맞추어 단순화, 도

Table 5. 한·중·일 전통 복식의 색 비교.

한국	중국	일본
 <p data-bbox="254 676 464 730">Figure 14. 색동 저고리. From Moon. (2012). p. 368.</p>	 <p data-bbox="606 676 821 730">Figure 15. 청대 치파오. From Wang. (2015). p. 206.</p>	 <p data-bbox="906 676 1228 753">Figure 16. 에도 시대 금사자수 시보리 기모노. From Milhaupt. (2014). p. 30.</p>

식화, 양식화, 추상화하였다(Jeon, 2003). 우리나라 문양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성이다(Lee & Choi, 2009). 문양의 회화적 표현보다는 단순화되거나 체계화된 문양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형태를 보여준다(Kim, 2006). 중국은 사실적인 형태와 세밀한 디테일이 특징이며 좌우대칭과 일정한 형식에 따른 정형화된 배치를 한다(Kim, 2006). 모티프의 형태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보다 음양이나 색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실에 가깝도록 표현하려 한 점과 금색을 표현할 때 금박보다 두꺼운 금사로 수를 놓은 것은 모티프의 입체화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Ryu, 2010). 문양에 크기는 삼국 중에 중국이 가장 크다. 일본은 다양한 문양의 사용이 특징으로 극히 사실적인 표현과 함께 양식화된 형태 또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을 사용하였다. 기모노에 사용된 문양은 생활 주변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였고, 자연풍경을 그대로 회화처럼 사용하거나(Jeon, 2003), 원래 형태의 특성을 살려 단순화하였다.

한국은 모란문양, 중국은 용, 일본은 국화를 많이 사용하였고 가문의 상징으로 은행, 매화, 국화, 계문, 등나무 등을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 문자문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징성이 강하나 일본

은 특별한 상징성 없이 장식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Table 6).

IV. 한국적 패션디자인 요소

1. 선에 따른 분석

한·중·일 건축의 지붕선은 곡선으로 이뤄져 있다. 소위 중원이라고 불렀던 한족 문화의 중심인 중국 중, 동, 남부 지역의 건축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중·일 지붕곡선은 일본이 가장 직선적이고 중국은 가장 곡선적이며 우리나라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한·중·일 전통복식에서 윤곽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곡선적이고 중국은 직선적이며 일본은 매우 직선적이다. 장식에 사용된 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직선적이고 중국은 곡선적이며 일본은 회화적이다.

한복은 원단의 제작 형태 그대로 구성을 시작하고 깃, 도련, 배래 부위는 곡선으로 봉제한다(Park & Shim, 2016). 선의 형태는 한국 건축의 지붕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릉의 곡선을 가지고 있다(Figure 17), (Figure 18), (Table 7).

Table 6. 한·중·일 전통 복식의 비교.

구분	한국(한복)	중국(치파오)	일본(기모노)
선	- 급격한 변화가 없는 완만한 선	- 인체의 형태를 따른 구체적인 윤곽선	- 인체의 형태를 왜곡한 직선적인 윤곽선
형태	- 고름을 이용 - 여유 있는 착용 - 가변적 윤곽선	- 단추를 이용 옆선에서 여밈 - 의복을 신체에 밀착 - 윤곽선 고정	- 같은 형태의 의복을 3~4벌 겹쳐 입는 형식 - 오비를 이용 신체와 밀착 - 윤곽선 고정
색	- 높은 명도의 정색과 무채색을 사용 - 색동과 무지(無地),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 원색의 조화와 중간색의 대비	- 강렬한 원색계열의 높은 채도 선호 - 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짙은 배경색	- 산뜻하고 정갈한 색채 사용 - 중간색 사용 - 에도시대 후반기에 차(茶)·서(鼠)·감(甘)·남(藍)색 계통의 색이 애용
문양	- 양식화와 추상화의 조화로움 -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 모란문 - 사실형을 간략화, 평면적 표현 - 평면적, 소박함	- 사실적 형태와 좌우대칭 - 정형화된 배치 - 균형미 중시 - 용문 - 사실형의 크고 입체적인 모티프 - 입체적 화려함	- 문양의 양식화, 기하학적 연출 - 극히 사실적 표현 - 국화문, 가문의 상징 - 사실형의 극사실적 표현 - 장식적이고 섬세함

Table 7. 한국 건축의 지붕선과 저고리 배래선과 도련선.

삼회장 저고리	당의	광풍각
 <p>Figure 9. 누비 삼회장 저고리와 치마.</p>	 <p>Figure 17. 당의. From Ji. (2015). p. 23.</p>	 <p>Figure 18. 광풍각.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25, 2017)</p>

제작의 효율성보다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려는 미의식은 한옥과 한복의 곡선에서 공통으로 보여준다. 한복의 치마는 폭을 붙이고 주름을 잡아 말기에 고정시킨 반 완성된 형태로 착용자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의 부드러운 윤곽선을 만든다. 치마의 윤곽선은 소매의 곡선과 슬쩍 보이는 바지의 곡선과 함께 어우러져 율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의 복식에도 곡선이 나타나지만 목선과 장식선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곡선은 우리나라에 비해 힘이 급하다. 기모노는 원단의 직선형태를 더욱

직선으로 보일 수 있도록 착용 방법을 고안해 직선의 윤곽선을 보여주며, 소매에서 나타나는 곡선도 길과 연결부분에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2. 형태에 따른 분석

우리나라 건축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자연과 호흡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돌과 마루는 추위와 더위에 대응하고, 들어열개문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연결한다(Figure 20). 중국의 건축은 높고 견고한 담으로 안과 밖을 나누고 구성원은

Table 8. 가변적인 치마의 착용, 건물에 부착된 차일.

치마	주릿대치마	차일
 <p data-bbox="201 683 519 709">Figure 9. 누비 삼회장 저고리와 치마.</p>	 <p data-bbox="576 683 843 736">Figure 19. 주릿대 치마. From Lee and Lee. (2009). p. 264.</p>	 <p data-bbox="901 683 1225 751">Figure 20. 부벽루 연회도. From 부벽루 연회도 [A feast at Buffoulu]. (n.d.). http://www.museum.go.kr</p>

철저한 위계질서를 유지한다. 일본의 주거건축은 커다란 방의 형태를 쇼지몬(しょうじもん)과 후스마(ふすま)로 공간을 나누지만 후스마를 떼어내면 공간은 하나가 된다. 중국은 담을 쌓고 담을 벗어 나지 못하며 일본은 내부지향적으로 외부와 소통하지 못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건축은 내부와 외부가 통한다.

한복의 저고리는 고름을 여밈으로 사용하여 인체와 의복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두고 착용되며, 착용자의 상태와 취향에 따라 여유를 조정할 수 있고, 주름이 잡혀 있는 치마는 착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Figure 19). 이러한 한복의 특징은 내부와 외부의 구별없이 공간을 사용하는 한옥과 유사하다(Table 8). 치파오는 고정된 위치에 단추를 이용한 여밈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견고한 담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쓰허위안과 고정된 틀로 내부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기모노는 내의와 외의의 구별이 없는 같은 형태의 의복을 포장하듯 겹겹이 착용하며 착용자의 신체를 깊은 속에 있도록 한다. 이것은 박공과 좁고 긴 복도로 깊숙한 오쿠(おく)의 공간을 만드는 마치야(まち야)와 유사하다.

3. 색에 따른 분석

삼국에서 사용되는 색을 비교하면 채도는 중국이 제일 높고, 명도는 한국이 높다. 중국은 매우 강렬하고 풍부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축과 공예, 복식 등 대부분의 생활도구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흐릿한 회색톤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명시성(明視性)과 주목성(注目性)이 강한 색상을 대비적으로 사용한다(Kwon, 2006).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명한 색상을 대비하여 경쾌한 느낌을 준다. 색동의 경우 우리나라의 색동에 사용된 색이 동부아시아 30개 민족 중에서 가장 화사하고 밝다(Cho & Kim, 2010), (Figure 21). 단청의 경우도 각각의 명료한 색이 대비를 이루지만 근접색이 서로 어울려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풍부한 색감을 보여지도록 세련된 배색방법을 보여준다(Figure 22), (Table 9). 중국은 전체적인 색상대비가 강하고 화려하며, 일본은 무채색계열을 주색으로 사용하면서 명시성 높은 강조색이나 금색을 사용한다. 중국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화려한 색인 금색을 많이 사용했다. 일본은 간색을 주로 사용하여

Table 9. 원삼과 단청.

전라도 원삼	단청
 <p data-bbox="339 736 539 759">Figure 21. 전라도 원삼.</p> <p data-bbox="251 763 632 786">From Korean Apparel Association. (2003). p. 121.</p>	 <p data-bbox="903 736 1036 759">Figure 22. 단청.</p> <p data-bbox="862 763 1076 786">From Moon. (2012). p. 394.</p>

차분하지만 금색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기모노에도 스리하쿠(すりはく)와 같은 기법으로 금색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으로 금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양한 색상을 적당히 배열하여 경쾌함을 주었다. 보색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채도와 밝기의 차이가 있는 색들을 사이에 배치한 단청같이(Ji, 2015) 우리나라는 실제로 빛이 나는 금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색조함으로 청량감을 주었다.

4. 문양에 따른 분석

한·중·일 건축과 복식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유형은 자연문양, 기하학적문양, 문자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징성과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문양은 자연적이고 추상적이며, 사실적인 형태를 추상화한 문양과 기하학적인 문양을 동시에 사용한다(Figure 25). 상징성이 강하며 간략화 된 문양을 소박하고 은은하게 표현한다. 중국의 문양은 화려하고 상징적이다. 사실적인 문양을 양감이 풍부하고 색채가 강하게 표현한다(Park et al., 2004). 중국

은 삼국 중에 문양의 크기가 가장 크고 문양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며 전체면을 가득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가문을 상징하는 식물문이 발달하였다. 극히 사실적인 표현과 양식화된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가 모두 사용되었다. 문자문양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징성이 뚜렷하지만 일본의 문자문양은 모티프들의 중첩이 많으며 복잡하고 장식적이다.

우리나라의 문양은 자연에서 모티프를 가져오지만 사실성보다는 대상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다(Ryu, 2010). 이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것은 자제하지만 대상의 본질은 살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이다. 우리나라의 꽃문양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꽃의 종류에 비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Figure 23>, <Figure 24>와 같이 꽃의 종류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연화, 모란, 국화, 매화 등이다. 특히 복식에서 자주로 표현된 꽃문양은 모란이 가장 많으며(Kim, 2007), 소박하고 은은하게 표현되었다(Table 10). 중국 복식에서 사용된 자수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입체적이고 화려하며, 용문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의 복식은 극히 사실적인 표현의

Table 10. 모란을 모티프로 한 직물과 주머니, 꽃창살.

석류, 모란, 나비 문양	모란문 귀주머니	동화사 꽃창살
 <p data-bbox="211 722 508 794">Figure 23. 석류, 모란, 나비 문양.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3). p. 55.</p>	 <p data-bbox="589 722 833 774">Figure 24. 모란문 귀주머니. From Lee et al. (2003). p. 155.</p>	 <p data-bbox="955 722 1172 794">Figure 25. 동화사 꽃창살. From Kim. (2011). http://www.ohmynews.com.</p>

문양과 단순화된 문양이 같이 나타난다. 다양한 염색기법이 발달한 일본은 단순한 기모노 위에 회화적인 표현으로 장식성을 더했다.

V. 결론

한·중·일 삼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문화유산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한번의 연구로 충분한 결과를 찾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연구가 계속되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중·일 건축과 복식을 시대적 특징과 유형별 특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비교한다면 현재 디자인의 계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생활양식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건축과 복식의 동질성을 찾고 각국을 비교하면 유사한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삼국이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적 환경에 의한 재료의 차이가 건축과 복식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재료가 부족하여 자연 친화적인 제작 방법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제작 방법은 현대사회의 디자인에도 반영해야만 하는 훌륭한 요소이다. 문헌 조사와 함께 실제 유물 조사와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과 면접을 통해 건축과 복식의 진정한 미의식의 지향을 알아본다면 더욱 명확하게 한·중·일의 차이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세침략과 전쟁으로 전통문화유산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전통을 만들어간다면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와 생활양식을 반영한 조형물인 건축과 복식을 비교하여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건축과 복식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구조와 형태, 자연의 색을 선호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범위가 넓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욱 많은 자료조사와 실제 관찰을 통하여 보다 확고한 한국적 디자인의 특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의 본질을

찾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언젠가는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패션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한복 스타일’로 인식되어 한복 스타일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Cho, W. H., & Kim, M. J. (2010). Genealogy of the rainbow stripe in ethnic costumes in East Asi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60(4), 113-125.
- Chuncheon National Museum. (2016). *중화복식예술* [Chinese clothing art]. Seoul: BAdesign.
- Garrett, V. M. (2007). *Chinese dress: From the Qing dynasty to the present*. North Clarendon: Tuttle publishing.
- Geum, K. S. (1990). A Study on the beauty in Choson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4(-), 167-183.
- Han, D. S. (2009, October).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chitecture. *Proceeding of Understanding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uwon*, 117-150.
- Han, D. S. (2011). Wooden buildings and structural aesthetics of East Asia.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55(12), 31-33.
- Hong, B. H. (2012). Comparing the installing angle rafter of China·Japan and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1(2), 21-36.
- Hong, N. Y., Sin, H. S., & Lee, E. J. (2011).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History of East Asia costumes]. Paju: Gyomunsa.
- Jeong, H. (2009).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Japan Japanese and Japanese culture]. Paju: Darakwon.
- Jeon, J. Y. (2003). *한·중·일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 비교 연구: 16C~18C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 of Korean·Japan traditional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i, S. H. (2015). *한·중·일의 미의식* [Aesthetic sense of Korea·China·Japan]. Paju: Artbooks.
- Kim, D. W. (2015).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Korean architecture Chinese architecture Japanese architecture]. Seoul: Gimmyoungsa.
- Kim, D. Y. (2002).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Japanese architecture. *Proceedings of the AIK Conference, Daegu*, 13(-), 85-88.
- Kim, H. D. (2011, February 14). 대구 동화사에 가서 역사를 알다 [Go to Daegu Donghwaswa to learn history]. *OhmyNews*. Retrieved September 20, 2016,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3448
- Kim, H. J. (2006).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as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pattern in Northeast As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I. S. (1974). *심외고* [Simuigo].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Y., & Kim, S. A. (2012). An analysis of color on modern ethnic fashion of Korea, China,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1), 93-102.
- Kim, J. S. (2007). *Symbolic meanings and formative characters in shapes and colors of Korean traditional flower motif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K. S. (2004). *Comparative analysis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urniture in housing cultural context of Korea, China and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oike, M., Noguchi, H., Yosimura, K., & Shibata, M. (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Costume history and life culture history of Japan] (Hur, E. J., Trans.). Seoul: amunhak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2002)
- Korean Apparel Association. (2003). *조선왕조복식* [500 years costumes of the Joseon Royal house]. Seoul: Misul Munhwa.
- Kwon, Y. G. (2006). *한·중·일의 공간조영* [Space syntactics in Korea, China and Japan]. Seoul: Kukje Publishing House.
- Lee, D. S., & Lee, S. W. (2009). *코리아 에 코리아니* [Corea e Coreani]. Seoul: Haneuljae.
- Lee, H. A. (2008).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isual system's special attribute and molding elements. *Art Education Review*, 31(-), 219-256.
- Lee, H.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design element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H. (2016). Color culture of Japanese Modern Age: Focused on Edo Period.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0(4), 1-14. doi:10.12940/jfb.2016.20.4.1
- Lee, K. J. (1986). A study of the aestical features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ulture*, 51(-), 281-308.
- Lee, K. J., Hong, N. Y., & Jang, S. H.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accessory]. Paju: Youlhwadang.
- Lee, M. J., & Choi, H. S. (2009). A study o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with the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1), 75-88.
- Lee, M. L., Park, H. K., Kim, I. G., Lee, J. H., Ku, H. W., & Lim, Y. A. (2007). *동양미술사 하권* [Oriental art history the second volume]. Paju: Mijinsa.
- Li, Y. (2000).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Cathay's idea: Design theory of Chinese classical architecture] (Lee, S.

- H., Han, D. S., Lee, J. H., & Joe, I. S., (Trans.). Seoul: Si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Liu, Y. (2012). *A study on Chi-pao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through change process of Chipa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Milhaupt, T. S. (2014). *Kimono: A modern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 Moon, E. B. (2012). *한국의 전통색* [Korean traditional colours]. Seoul: Angraphics.
- Namkung, M. J. (199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apanese folkcostume in the modern Japanese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3). *생활 속에 담긴 우리 옷의 발자취* [(The) trace of Korea costumes in living culture].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Park, M. H., & Shim, S. B. (2016). Modern fashion design development u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anb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2), 134-147. doi:10.7233/jksc.2016.66.2.134
- Park, Y. S., Cho, E. S., Lee, H. J., & Jin, K. O.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lor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13(2), 168-175.
- Ryu, H. J. (2010).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on pattern featured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dres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2(2), 107-118.
- Shim, S. B. (2016). A study of the aesthetic sense of Hanbok and Kimono by analyzing Korean and Japanese Ink Paint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5), 82-98. doi:10.7233/jksc.2016.66.5.082
- Song, H. R. (2010). A study on fashion design by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Flowered-Wall mot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1), 41-56.
- Wang, G. H. (2015). *중국전통복식 청대복장* [Traditional Chinese costume Qing Dynasty costume]. Beijing: Chinese textile publisher.
- Yoon, J. S. (2008). *한국건축* [Aesthetics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누비 삼회장 저고리 [Quilted Ornamental Jacket].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November 25, 2016, from http://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118&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_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82%BC%ED%9A%8C%EC%9E%A5%EC%A0%80%EA%B3%A0%EB%A6%AC
- 부벽루 연회도 [A feast at Buffoulu].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September 30, 2016, from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443#>
- 치마 [Skirt].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September 30, 2016, from http://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3474&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sUseType=000109&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19&_Relic_WAR_museumportlet_sMaterialType=000070&_Relic_WAR_museumportlet_sEraType=000015&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_Relic_WAR_museumportlet_sRelicType=0002

A Study on Fashion Design through Comparis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stume

Shim, Sang Bo⁺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Abstract

Fashion design is influenced by a contemporary lifestyle and aesthetic consciousness and there is a common element shown from the comparison of other works in the same perio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raditional costume design elements that show the identity of Korea by comparing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stumes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share the basic elements of a human life-food, clothing and shelter. First of all, the subtle line which can be seen in Korean architecture and costumes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The pattern of Hanbok incorporates both straight and various curving lines from the contours of the human body, which creates a sense of naturally flowing harmony and provides comfort and mobility. Next, Hanbok focuses on variability and functionality that minimize decoration and maximize function for increased mobility. For instance, Jeogori is comfortable and easy to wear as it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wearer's body. Thirdly, another characteristic of Hanbok is the color of nature. The color schemes used in Korean architecture and costumes are vivid and contrast in complementary colors, which give a decorative effect and add the elegance and refined beauty of Hanbok. Lastly, Hanbok uses the simplified pattern of natur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re influenced by nature and the motifs are further simplified unlike the realistic motifs of China and Japan. The natural pattern of Korea has been designed with simplicity in mind while revealing the original source of inspiration.

Key words : architecture of Korea, Hanbok, Korean style, Hanbok style, Korean fashion design

